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7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절 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 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 전파 뛰다보니 아름다워진 사람들



한전 광주·전남본부 마라톤동호회 ‘뛰아모’는 3·1절 마라톤대회에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다짐하는 힘찬 질주를 펼친다는 각오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전 광주·전남본부

“품질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는 한전이 되겠습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종필) 마라톤 동호회 ‘뛰다보니 아름다워진 사람들’(회장 양대동·이하 ‘뛰아모’)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뛰아모’는 재치만점의 팀 이름답게 달리기 실력도 수준급이다.

‘뛰아모’가 달을 올릴 때만해도 20명 남짓이던 회원이 지금은 어느덧 본부 회원만 70명, 사업소를 포함해 200여명이 넘는 등 한전 광주·전남본부의 대표적인 동호회가 됐다. 지난해 100여명이 넘는 회원과 가족

1km 땀 때마다 불우이웃 성금

들이 참여했던 ‘뛰아모’는 이번 대회에는 사업소 참여 직원을 포함해 30여명의 회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동호회 선수들이지만 실력만큼은 수준급이다. 양대동 회장은 “3·1절 마라톤대회를 통

해 겨우내 다졌던 동계훈련을 평가 하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면서 “이처럼 ‘뛰아모’ 회원들에게 이 대회는 새봄을 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또 “이번 대회를 통해 세상에 빛을,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파수꾼의 긍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뛰는 열정 못지않게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도 앞장서고 있는 ‘뛰아모’는 올해부터 회원 1인당 1km를 땀 때마다 100원씩 적립해 불우시설에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뛰아모’의 ‘영원한 마행’으로 3년전 현

회원들 가족과 함께 레이스

역에서 퇴직한 62세의 박상점씨는 하루를 1시간 37분대에 달리는 건각이며, 지금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광주 중외공원에서 6시30분부터 8시까지 훈련을 하는 ‘강철체력’을 과시하고 있다.

‘뛰아모’는 평일엔 중외공원 2.5km 코스

를 4바퀴에서 7바퀴를 돌면서 지구력 향상 훈련을 하고 주말에는 광주천과 무등경기장 육상트랙에서 인터벌 훈련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했던 송호선씨와 박관석씨는 달리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대표적인 회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신이 내린 보약 한 사발’을 마신다는 생각으로 달리고 있다.

정동만씨와 하홍철씨는 그야말로 ‘철인’

들이다. 정씨는 울트라 마라톤(100km)에 출전해 두 차례나 14시간대에 완주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하씨는 절인경기대회에 20차례 출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철인 중 철인이다.

‘뛰아모’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올해도 ‘세상에 빛과 사랑 전하기’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시한번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이중범)



<서재응> <김상훈> <이현곤> <곽정철> <김상현> <안치홍> <홍세완> <김원섭> <박기남> <이대진> <양현종> <윤석민> <이용규>



올해도 ‘호랑이 천하’ 만든다

KIA타이거즈 선수들의 설 다짐

이중범 그라운드에서 뛸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후배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고참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싶다. 후배들도 많이 성장했고 외야의 경쟁이 치열하다. 야구에 대한 열정과 능력으로 외야를 누비며 팀 우승에 조력하고 싶다.

이현곤 지난 2년간 타격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 유격수로 뛰면서 타격까지 욕심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3할 복귀에 도전하겠다. 지난해 폴타임을 소화하면서 경험도 쌓고 많은 준비를 해왔다. 개인적으로는 곧 태어난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홍세완 야구를 잘하는 게 나의 소원이다. 아프지 않고 예전처럼 야구를 하고 싶다. 최고의 성적을 내는 것도 바라지 않고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원없이 운동을 하고 싶은 게 나의 큰 바람이다. 가족들과 충분히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유지하고 싶다.

양현종 지난해 입단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을 거뒀다. 올해도 역시 두 자릿수 승에 도전한다. 또한 지난해보다 더 좋은 활약을 해 아시아게임 대표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싶다. 그리고 옆에서 든든하게 응원해 줄 여자친구도 생겼으면 좋겠다.

서재응 아프지 않고 한 시즌을 보내보고 싶다. 우승도 해봤기 때문에 부상없이 풀 시즌을 보내는 게 올해의 목표다. 굳건히 마운드를 지키면서 아직 이뤄보지 못한 10승도 달성하고 싶다. 나의 건강만큼 가족들 모두 건강하면 좋겠다.

곽정철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 팀성적이 좋으면 개인 기록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아시아게임 대표로 선발되는 게 최종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팀의 주축선수로 자리를 굳히고 싶다.

김원섭 올 시즌 팀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만큼 외야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우선 목표다. 몸이 좋지 않아서 시즌 중반 한번씩 위기가 찾아오는데 최대한 많은 경기에 출장하고 싶다. 전경기 출장은 야구 선수로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올해는 훈련도 많이치고 싶다.

윤석민 폴타임을 올해 목표로 내세웠다. 해마다 부상때문에 폴타임을 뛰지 못했다. 2008년 기록한 154와 3분의2이닝이 한 해 최다이닝인데 그 기록을 넘어서고 싶다. 무엇보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올 한 해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김상훈 2009년 너무 많은 걸 이뤘다. 그래서 올 시즌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무조건 팀의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루는 게 나의 목표이고 꿈이다. 아버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된다. 부모님이 건강하시기를 바란다.

김상현 지난해 꿈이던 꿈을 다 이뤘다. 올 시즌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부담감을 극복하고 꾸준히 잘하는 김상현이 되고 싶다. 최다실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는데 수비에서도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다. 곧 아이도 태어나게 되는 만큼 새 인생을 산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고 싶다.

박기남 지난해 새로운 팀에 와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올해는 시합도 더 많이 나가고 좋은 모습 보이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이용규 어게인 2006년이 올해의 목표다. 지난해 팀이 1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상과 부진으로 야구 인생 최악의 해가 됐다.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됐던 2006년의 이용규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게 유일한 소원이다.

최희섭 지난해 한국에 돌아올 때 팬들에게 약속했던 KIA 우승을 이뤄냈다. 우승에 대한 욕심은 여전히 있다. 다시 한 번 팀의 우승을 위해 희생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훈련왕에 욕심을 내겠다. 133경기 전 경기를 뛰면서 40개 이상의 홈런에 도전하겠다.

(최희섭)

